<아타타> 춘상 역 오디션 지정 대사

춘상 그래. 자네는 관상만 봐도… 사람이 착하긴 하지만 뭘 모르는 것 같으이. 그렇게 살다가 장가는 어찌 가겠는가.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겨야지. 나도 아무리 망나니같이 살았다만 결국엔 한 여자에 정착을 해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어. 그래. 우리 아내가 남쪽 지방 사람인 데 말이야….

내가 남쪽 사람이라 그런가. 중국 와서 동포 여자들이랑 연애를 하고 그러면… 북쪽 사람들이랑은 잘 맞지 않더라고. 날씨가 사람을 만든다고, 북쪽 여자들 기질이 좀 그래. 너무 드세고 순하질 못해. 한 번은 아예 방 잡고 살림까지 차렸었는데….

에잉… 됐다. 내가 괜한 말을 했네. (신나 있다가 금세 시무룩해지며 잠시 정적)

하여간 한국에 돌아와 남쪽 지방 여자를 만나니깐 기를 펴고 살겠드라고. 옳다구나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잘 살았지. 이게 또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! 좋은 여자를 알아보는 눈이 생겨서 결혼도 잘 하는 거야. 응? 알겄어?